

宗教 及 倫理

어이켄의 宗教思想 (續)

저자미상

宗教와 人生

大抵 吾人の 日常生活은, 恆常 同一한것을 繼續함과 如하나, 然하나 此는 不然한야, 少히 活眼을 開한야 見할진디, 決코 同一한 意味로써 古人의 步武를 隨함은 아니라, 舊한中에도 新을 得한야 進々不已한는 吾人の 生活인줄을 可知라, 然하나, 盲者와 又는 凡者는 其新을 新으로 見치 못하고, 大部分의 色彩 中에 掩沒한야 更히 新을 不得한는 것이라. 故로 其 新도 舊와 如히 隔년지도不知로다. 어이켄氏[루돌프 오이켄]는 這般의 消息을 傳한야 言한되「一朝에 每樣新한 事態가 起來한다」云한며 又는 興味와 努力을 其中에 求한야「新의 問題는 恆常 人類의 努力을 喚起한며, 要求한는 中이라」言한 엇도다. 宗教의 問題는, 人類의 原始時代부터 誕生한얏나니, 恒河의 水와 요단江의 流는 宗教의 色彩를 帶한야, 茫茫數千年을 經過한엇도다. 然하나 此 古中の 古에서 求한, 어 어이켄氏는 一新事業이 宗教問題 中에 含有한것을 發言한엇도다. 哲學의 古依와 宗教의 古依는, 今에 至한야 其 色彩를 改한時期의 到達함을 論評한며, 宗教의 絶對正과 其 證明時期에 到達함을 絶한한엇도다. 「宗教는 過去 數年間에 亘한야, 人類의 特性과, 特色을 證明한엇시나, 今日에는 此 問題의 根底부터 研究치 아니치 못할 危機에 到達한엇도다. 宗教其物은 攻擊되고 何如間 根底를 確立치 아니면不可한도다. 從來로는, 種々研究와, 論文을 發表한야 縱橫論議한엇시나, 予의 信한는바에 依할진디, 宗教에 關한 辯明은, 其 根柢를 人生에 不置한면 不可한다 言한엇도다. 然則 먼저, 人生과 宗教에 就한야, 嚴格한 定義를 要求한리로다. 如斯히 宗教의 危機를 絶한한야 世人을 警告한며, 彼가스사로 採用한 定義를 見한건디, 如左한도다.

人生이라 함은 實際生活만 指함이 아니오, 其 以上을 意味함이니 吾人の 日常生活에 關한, 法律, 命令, 器械의 通用 以上을 意味함이라, 大抵 人生은, 一切의 活動能을 含有한 者이며, 宗教는 崇高한 勞力과 單純한 信仰이 아니

오. 其 崇高한 勢力은, 內界와 合一해야, 新生活을 創造한다 하였도다. 又是 生活이라 함은 다만 生存을 云할뿐만 아니오, 明瞭히 發達한 階梯가 有함을 言하니

一, 自然生活 時代

二, 精神生活 時代

如斯히 漠然한 區別에 對하여는「何人이던지 疑問을 挾할 餘地가 無하니, 即 人生의 生長하는 狀態를 見건디, 孤々の 聲을 舉함으로부터, 頭腦가 發達되지못한 時代에는, 現代心理學 研究에 從할지라도, 精神生活時代라 云하기不能할 것이오. 小兒는 다만 本能과 衝動에 依하여 生活한다 한것이라, 又是 成人이 될지라도 何人이던지, 다 精神生活을 營한다 함은아니라. 中에 난 全혀 精神生活을, 度外로 視하는 者도 多數하도록다. 這般消息을 어이켤은「如左히 說하니 吾人의 自然創造物됨은, 何人이던지 否定키 不能할 것이며, 此 初類에 屬하는 肉體機關뿐아니라, 感覺并히 衝動에 依하여, 吾人의 靈魂을 捕捉하여 吾人의 肉의 生活을 助하는 것이라.(未完)